

② 발행어음을 투자자문·일임 대상자산에 포함

- **(현행)** 종합금융투자사업자·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이 투자자문·일임 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곤란

* 펀드, 신탁의 경우 발행어음을 투자대상 자산에 포함

- **(개선)** 종합금융투자사업자·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을 투자자문·일임 대상자산에 추가 (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)

■ **(기대효과)**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자문·일임 포트폴리오 제공

③ 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(CP) 매매 허용

- **(현행)** 과거 환매조건부 CP 매매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종금사·증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를 금지('98.4월)

- 이후, 종금사에는 환매조건부 CP 매매가 재허용('98.12월)되었으나, 증권사에는 현재까지도 금지되고 있는 상황

- **(개선)** 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CP 매매 허용 (금투업규정 개정)

■ **(기대효과)** 증권사의 운용 자율성 확대로 증권사의 경쟁력 제고

④ 투자일임계약시 '투자자정보확인서' 중복 작성 개선

- **(현행)**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하는 경우,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용 '투자자정보확인서'를 작성한 이후,

- 해당 투자일임 계좌개설을 위해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용 '투자자정보확인서'를 별도로 작성함에 따라 불편

- **(개선)** 증권사가 계좌개설업무만 수행하고 별도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, 투자자정보 확인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*, 증권사에서는 '투자자정보확인서' 작성이 불필요함을 명확화 (법령해석)

* 자본시장법(§46②)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정보를 확인하도록 규정

■ **(기대효과)**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절차 간소화

3. 향후 추진 계획

☐ (법령해석 필요사항) 12월 중 법령해석(1건*)

* 투자일임계약시 ‘투자자정보확인서’ 중복 작성 개선

☐ (법령개정 필요사항) '19년 상반기중 법령개정(3건)

※ 기타 개선과제(5건) 및 과제별 검토결과(15건)는 개별 건의기관에 별도 회신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